탈 모더니즘 제품디자인의 수용을 위한 이해 (1) -키치와 버내큘러 디자인 제품을 중심으로-

The Understanding for Acceptance of Ex-Modernism Product Design (1)

류승호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

Ryu, Seung-Ho
IDAS Ph. D course

문 찬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켄텐츠학부 전임강사

Moon, Charn
Division of Media Design Contents, Hansung Univ.

• Key words: Kitsch, Vernacular, Sign, Symbol, Pluralism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의 대상은 기능주의로 지칭되는 모더니즘과 이에 반하는 키치 적 디자인, 그리고 버내큘러 디자인이다. 키치와 버내큘러 디자인은 생활과 밀접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아직 뚜렷하지 않으며, 이 개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산업구조 속에서 디자인 분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키치-버내큘러 디자인의 연관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흐름을 정리한다. 이어서 키치와 버내큘러 디자인을 정의하고 그 사례를 통해 제품디자인을 위한 발전적 적용방향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성, 역사성, 문화성, 유희성과 같은 탈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징적 요소들이 대량생산을 위한 제품디자인의 문화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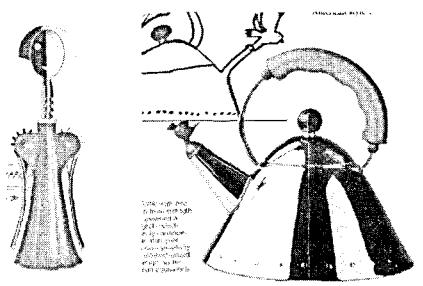
먼저 생활용품들을 대상으로 키치와 버내큘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선정하고 그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생활용품으로 범위를 제한한 것은 그것이 키치와 버내큘러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제품들 속에서 키치적 성격과 디자이너의 창조활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2. 탈 모더니즘 디자인

2-1. 포스트 모더니즘(Post Modernism)

탈 근대 또는 근대 이후의 의미를 갖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디자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전통적인 기능주의(모더니즘)의 엄격하고도 엘리트적인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대중적인 취향에 접근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디자인 또는 기능주의에 반대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을 모두 포함한다.[1] 포스트모던디자인은 특정양식의 진술을 위한 용어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양상을 강조하는 문화적 다원주의(*Pluralism*)의 성격을 표명한다[2]. 다양한 양식의 문법적 해석을 시도하는 역사주의적 경향, 특히 복고적 향수감을 메시지로 전달하려는 시도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특성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유희적 즐거움(*fun*)의 개념이 포함되어 대중에게 보다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시도되었다.

1)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종, 디자인사전, 안그라픽스, 1994, p.106
2) 앞의 책, p.390



<그림 1: Corkscrew "ANNA G" / Alessandro Mendini>
<그림 2: Kettle "Small bird shpd whistle" / Michael Graves>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의 양식을 현대적 기호로 재구성한 제품들은 지역성과 상징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들은 사용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주어 사용자에게 복합적 정서[3]를 유발한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2-2. 키치(Kitsch)

키치는 일정한 양식에 구애받지 않는 것과 추상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이다. 이것은 시각예술, 회화, 조각, 문학, 오브제,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된다.[4] 물론 기능주의에 바탕을 둔 모더니즘적은 안티 키치(Anti-Kitsch)의 시각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키치가 일상생활 속의 제품디자인에서 다양한 적용 범위를 갖는 것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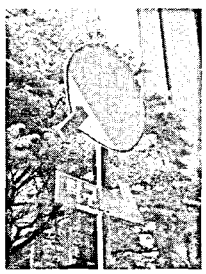
제품디자인에서의 키치는 기존 사물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모방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기존 사물이 인공물이건 자연물이건 모방한다는 행위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만약 하나의 시계가 인공물인 집의 모양을 갖고 있다거나, 분무기가 포도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비친 디자인이 집과 포도라는 기존 사물의 이미지를 뚜렷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방으로서의 키치는 상징적 기능[5]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생명 없는 사물에 혼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6]은 설득

3) 포스트모던 제품디자인에서는 흔히 역사주의적 재해석이나 장식적 요소의 부활,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병치 등 표현적 자유의 실현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발생시킨다.
4) Abraham Moles, 엄광현 譯,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5, p.12.
5) 아이스크림 모양의 사인은 점포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도구이며, 따라서 키치가 인간과 사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6) 앞의 책, p.21.

력이 약하다. 혼을 넣는다는 것은 인간과 사물사이의 교감을 상징하지만, 이것은 제품에 기존 사물의 이미지를 적용시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우수한 사용성 및 디자인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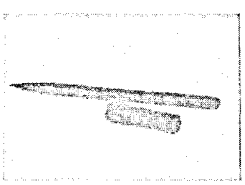
<그림 3: 아이스크림 모양의 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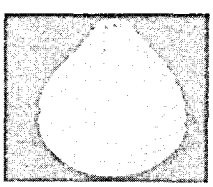
<그림 4: 탁구 라켓 모양의 사인>

2-3. 버내큘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

버내큘러 디자인은 과거의 모든 역사적, 민족적 양식과의 단절을 추구한 근대디자인(모더니즘) 중심의 역사에 대한 수정을 뜻한다.[7] '버내큘러'는 '지방 고유의', '토착어의', '향토적 스타일의', 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이자 동시에 '사투리', '일상어(비공식적인)', '속칭(또는 속명)'의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버내큘러 디자인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기획 및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개념이나 습관적인 방법에 의한 창조물을 뜻한다. 따라서 이것은 지리적, 풍토적 생활환경 및 양식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5: 붓펜/한국/모나미>



<그림 6:지등/일본/이사무 노구치>

그러나 포스트모던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버내큘러적 요소들을 절충주의 적 입장에서 그들의 디자인에 반영하였다. 2001년 세계산업디자인총회(*ICSID 2001 SEOUL*)의 부대행사였던 '20세기 세계디자인전'의 기획책자 'The Vernacular Mirror: Twentieth-Century Design'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개념을 '버내큘러 오브제'와 '버내큘러 디자인'으로 정의했다. 즉, 전자는 디자인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나 그들로 구성된 디자인 조직이 관여하지 않은 채 생산된 오브제로서, 후자는 산업디자이너로서의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 사회 조직의 관여 아래 생산된 오브제로서 설명한 것이다.

버내큘러는 넓고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정규디자인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가 지역적 토속성에서 유래된 요소를 현대적 의미에 맞게 재해석하여 산업생산물로 제품화한 '버내큘러 디자인'으로 제한한다. 한국의 지역적 토속성을 갖춘 버내큘러 디자인으로는 김치냉장고와 물걸레 기능이 부여된 진공청소기, 가정용 콩나물 재배기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디자이너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주류 디자인보다는 버내큘러 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화된 개량한복은 이러한 속성이 나타나는 또 다른 사례이다.

<그림 7: 개량한복 이미지 1>

<그림 8: 개량한복 이미지 2>

3.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키치와 현대적 버내큘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복고적 향수, 지역성, 문화적 다원주의, 그리고 유희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는 점에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하위개념 또는 병렬관계에 있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키치는 고급 대 저급의 관계이며 이발소에 걸려있는 그림과 같이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밑에서부터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일종의 취향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버내큘러는 그 범위도 넓고 시대적으로도 예전의 공예시대부터 있어왔던 개념이므로, 현대의 버내큘러에 국한한다면 그 개념은 일종의 프로토타입과 같은 실험적인 상태로 보아야 한다.

키치와 현재적 버내큘러가 빠지기 쉬운 오류는 서구적 굿 디자인의 공식에 민족적 리터치를 가미한 저급한 성격으로 평가절하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포스트모던디자인의 다원주의와 절충주의를 차용하여 키치와 버내큘러 속에 '과거'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들은 긍정적인 것이다. 당대의 하위문화에서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지니고 등장하는 탈 모더니즘 적 디자인들은 현재로서는 학술적 범주에 넣기 이전에 취향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탈 모더니즘 적 디자인이 아직 논쟁적인 과정에 있고, 그 현상과 형성과정들을 학술적으로 정의내리기에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을 하위문화의 영향에 민감한 패션/의복부터 전자제품과 같이 대량생산을 전제로 하는 제품들에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일조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윤수현,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근거한 버내큘러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석사 논문, 2003.
- 김민수, 김민수의 문화디자인, 다우출판사, 2002.
- ICSID 2001 Seoul 집행위원회, The Vernacular Mirror: Twentieth-Century Design, 2001.
- 안유정, Cross-cultural Product Design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석사학위 논문, 2000.
- Abraham Moles, 엄광현 譯, 키치란 무엇인가?, 시각과 언어, 1995.
- 김희량, 현대 버나큘러 디자인의 역사적 맥락과 이를 사유화하는 디자이너의 작업논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학위 논문, 1995.
-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종, 디자인사전, 안그라픽스, 1994.
- 김소연, 키치 연구: 사회 문화론적 접근,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4.

7)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종, 디자인사전, 안그라픽스, 1994, p.101